

4.16 인권선언 추진단 구성을 위한 원탁회의

2015년 4월 14일 화요일 오후 2시30분

혜진; 오늘 사회를 맡은 저는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김혜진입니다. 지난번 3월 12일에 첫 회의를 했는데 그때는 너무 많은 분들이 계셔서 인사를 제대로 못 했다. 그동안 세월호 참사를 함께 기억하며 애를 써오셨던 분들이 이 자리에 많이 계시기 때문에 어떤 분들이 오셨는지는 한 번 알아봐야 할 것 같다. 잠깐 인사를 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한다.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잠시 가지려고 한다.

-> 인사 나눔.

혜진; 오늘 4.16 인권선언 추진단 구성을 위한 원탁회의이다. 3월 12일 제정위원 첫 회의를 했고 그날 회의를 통해 우리 모두가 함께 추진위원으로 이 자리를 만들자고 했다. 이 자리는 추진단 구성을 위한 원탁회의로 마련했다. 이 자리의 의미, 우리가 함께 어떤 마음으로 이런 논의를 했으면 좋겠는지 회의의 개최사를 듣고자 한다. 실행팀에서도 오늘 나온 발의문 초안을 위해서도 애를 써준 분이시다. 단원고 예은 어머님인 박은희님으로부터 개최사를 듣도록 하겠다.

박은희; 개최사 할 자격이 별로 없는데 준비과정에서 너무 적은 역할을 했기 때문에 개최사라도 하라는 뜻으로 받아서 간단하게 여는 말을 하도록 하겠다. 어제 단원고 희생자 어머님들 중 성호 어머님, 창현 어머님과 같이 성북경찰서와 동대문 경찰서를 다녀왔다. 그곳에 계신분들에게 미안한 마음으로 가서 만났는데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깜짝 놀랐다. 한 학생이 어떻게 연행이 되었냐 물어봤더니 뒤에서 뒤통수를 내리치는 것 때문에 놀라서 뒤돌아보는데 그 순간 캡사이신을 눈으로 정통으로 쏘아서 아무것도 안 보아서 당황하고 있는데 그때 바로 연행됐다고 했다. 그래서 학생이 처음 겪는 일이라 굉장히 어제 봤을 때 많이 불안해하고 떨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아이의 부모 입장에서 너무 화가 나고 어이가 없었다. 그리고 또 국민대책회의 활동가 두 명이 차 빼러 갔다가 주동자가 몰려서 지금 구속영장이 나왔다. 이런 상황을 보면서 우리나라 국가인권위도 있고 해서 우리나라가 인권이 관찮은 나라라고 착각하고 있는데 여전히 인권 사각지대가 많구나, 많은 정도가 아니라 도처에 깔려있구나 생각이 들었다. 4.16 참사가 사회에 무지했던 부모들에게 얼마나 위기인가를 알게 해줬고 전 국민들에게 위기인식을 높인 계기가 되었다. 벌써 1주기가 모레로 다가오는데 해야 될 많은 것들 가운데 가장 근본적인 일이 인권에 대해 환기시키는 일이야 아닐까 싶다. 지난 2~3개월, 길게는 지난 가을부터 인권선언을 준비해왔고 제안문을 준비한 것에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 원탁회의라는 말답게 어느 누가 주인이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주인공이 되어서 의견을 내주시고 여기 모인 인원수만큼 의견이다 반영될 수 있는 그런 토론의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 한 분이라도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가시는 분이 없었으면 한다. 좋다는 말이라도, 이해를 안 된다는 말이라도 자기 의견을 꼭 낼 수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한다. 그런 참여의 시작이 이 사회의 변화를 불러올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의미있는 자리, 앞으로의 큰 걸음을 위한 첫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모두 즐거운 마음으로 하지만 무거운 책임으로 함께해주시길 바란다.

혜진; 좋다, 어렵다는 말 한마디라도 꼭 해달라는 요청이었다. 가능하면 적극적으로 함께 논의해주시기를 요청드리는 말씀이기도 하다. 우리 개개인은 약하고 두렵다.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그 마음이 굉장히 강하긴 하지만 매번 부딪힐 때마다 두려운 것도 사실이다.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닐까 한다. 이 자료 1쪽에 보면 목차가 나와있다. 오늘 논의하고자 하는 순서다. 첫 번째는 보고 안건이다. 지난 경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려고 하고 논의 안건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4.16 인권선언 추진단, 구성과 제정 절차, 5월9일 전체회의 준비를 첫 번째로 논의한다. 잠시 쉬었다가 논의안건 두 번째, 오늘 가장 중요한 논의안건이다. 인권선언 발의문을 채택하는 거다. 발의문과 더불어서 추진위원들이 결의문까지 함께 채택하고자 한다. 이 순서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괜찮은지?

-일동 동의.

혜진; 보고안건으로 바로 넘어가겠다. 지난 3월 12일에 얘기를 들으신 분도 있지만 처음 함께하신 분도 계시다. 그간의 진행 경과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말씀드리겠다.

->미류 발제.

혜진; 그동안의 경과에 대해 보고를 해주셨는데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 해주기 바란다. 없으면 첫 번째 보고안건은 마치도록 하겠다. 첫 번째보다는 두 번째 논의안건에 관심이 깊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함께 어떤 식으로 제정 절차를 거칠지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다. 3월 12일에 많은 분들이 여러 이름과 절차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주셨고 추진단 구성을 조금 더 다른 방식으로 하기로 했고 실행팀에서 오랜 논의를 거쳤고 4.16 인권선언 추진단과 제정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고자 한다. 덕진님으로부터 발제를 듣도록 하겠다.

->덕진 발제.

혜진; 현재 304인의 추진위원을 먼저 모으고 함께 토론하고 이후에 광범위하게 시민위원을 신청 받아보자는 게 3월 12일의 대체적인 의견이었고 그에 따라 준비를 해왔다. 현재 304인을 다 모으지는 못한 상황이라고 보고를 드렸고 이후에 지역과 부문, 꼭 함께했으면 하는 분들을 모아 21일까지 해보겠다고 하셨다. 첫 번째가 추진단 구성의 문제다. 304인+이제 22일부터 본격적으로 온라인상으로 시민위원들을 함께 모아보자는 내용이다. 시민위원들은 책임과 의무를 갖고 함께할 수 있도록 해보자는 제안이다. 이렇게 추진단을 구성하는 것에 대해 의견을 주시면 좋겠다. 혹시 의견이 있으신지?

김희진; 질문인데 그러면 시민위원들이 하는 역할이 추진단으로 풀뿌리 모임을 진행할 때 풀뿌리 모임을 같이 진행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계획이 뒤에 있는지가 궁금하다.

덕진; 이후 계획은 304명의 추진위원이 중심이 되주셔야 한다는 요청을 드리고 있는 거고 지역, 단위 등에서는 지역 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다고 본다. 토론회 내용, 비용까지도 어떻게든 마련해보겠다고 고민하고 있다. 지역에 연락드려보니 동참하고 함께하겠다고 하시는데 이후 추진에 대해 부담 갖고 있는 분들이 있었다. 304회의 토론회를 하자고 하는데 개개인이 다 장소 잡고 자료집 내고 하겠다. 각 단체에 계신 분들은 단체 운영위라든지 회원모임같은 데서 이 발의문을 갖고 토론을 해주시고 의견 전달해주신다든지 풀뿌리 토론의 일환이라고 본다. 동창 모임 가서 등산대회 끝나고 한 번 돌려서 청취해주셔도 된다. 너무 정형화되어 있는 않고 열려있는 방식으로 의견 수렴하려고 한다.

김희진, 참여한 사람들이 시민위원이 되는건지?

덕진; 시민위원은 모집을 오픈하고 알려나가는데 자발적으로 한다. 이름만 올리는 방식이 아니라 조금 더 적극적인 표현을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임종호; 저도 좀 궁금한 것도 있고, 의견도 있고 한데 먼저 304인이 아직 채워지지 못했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생각이 다른 게 304인을 굳이 우리가 빨리 채워야 되는 의미가 있는지도 궁금하다. 304인을 채우는 데 있어서 좀 더 신중하게 의지를 갖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같이 해야 된다고 본다. 도와줄게 생각하면서 들어오면 큰 의미는 없을 거고 지금같은 회의들을 했을 때 참여도 등도 굉장히 본인 의욕이 없다면 떨어질 거고 결집하는데 많이 어려운 부분들이 생길 것 같다. 전차 회의 때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몰라서 그러는 지 설립하게 된 계기도 있을 거고 앞으로 운영, 재정 어떻게 할지 그런 부분이 궁금하다. 304인에 대한 가입할 수 있는 기준도 잘 모르겠고 우리 추진위원회가 만들어지면 활동해야 될 역할이나 앞으로 어떻게 네트워크를 만들어야 할지 지금까지는 없을 것 같은데 앞으로 위원회가 꾸려진다면 만들어 가야 할 부분이다. 그리고 국가인권위 등에 대해서 하고 있는 일 등을 잘 모르는데 설명을 해주셨으면 한다. 국가인권위가 하지 못하는 역할을 우리가 어떻게 할지.

덕진; 일단 국가인권위 관련한 건 명속 활동가가 국가인권위의 생을 걸고 있는 사람이나 종에 자세한 얘기는 들으실 수 있을 거다. 우리가 추진하는 건 인권선언인데 인권선언은 그 이후의 활동을 논의해 볼 수는 있으나 인권선언을 만드는 과정을 함께 하자는 것이고 이를 통해 사회가 변화될 수 있는 실천을 도모하자는 취지다. 304인을 절대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하나의 상징성으로 그 숫자를 말했다.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정말 함께 할 사람을 모집하려고 했기에 그 304인을 모으기가 어려웠다. 통화 다 하고 고민할 시간을 갖고 단체, 지역과 논의하고 답을 주고 이런 과정을 거쳐야 했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렸고 지금도 304인을 안 채우면 큰 일 난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3월 12일의 회의 결의도 있었고 선언을 추진하는 토대를 만들자는 취지다. 역지로 21일 기자회견 전까지 이름만 올리는 방식으로 하지는 않을 거다. 304인 채우지 못해도 추진단은 구성하는 것에 동의한다. 많은 재정이 필요하기도 하다. 인권선언이 나오면 해설집이 필요하고 지역 등 토론회에도 비용이 들 거고 지역에서 올라오는 개인, 풀뿌리 조직 등의 교통비 등까지 해결해보려고 준비하고 있다. 첫 번째는 약간 사소한 비용, 오늘 토론회 대관료, 자료집 비용 등은 지난 번 4.16 연대 운영위 회의에서 인권선언을 주요 사업으로 채택하고 인권선언위원회를 배치해서 여태까지 받았다. 근데 토론회나 해설집 제작 등 큰 단위 돈이 필요할 때는 소셜펀치 등 모금을 통해 별도의 재정을 만들기로 했다. 계좌는 만들어 봤고 재정은 지금부터 만들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재정도 그렇게 하는 걸 동의 해주시면 좋겠다.

***: 추진위원과 시민위원이 구성됐다고 하는데 책임과 의무라고 했다. 과연 그 책임과 의무가 어떻게 주어졌는지 그게 궁금하다. 정확하게 주어져야지만 물론 추진위원과 시민위원들도 관심 있어서 가입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정확히 부여해 준다면 더 적극적이지 않을까.

덕진; 뒤에 쉬는 시간에 명단 한 번 보시면 단체나 인권 쪽에 오래 활동하신 분들이 보면 왜 이런 사람이 빠져있을까 생각 들 수도 있다. 어떤 단체는 대표기도 하고 아니기도 한데 조직 하면서 그런 명망 있고 이런 분들 함께 하면 좋은데 그분들이 시간을 내서 우리와 토론하고 의견을 줄 수 있는 상황이 되면 함께 하고 아니면 다른 분을 추천해 달라고 했다. 단체에서도 단체 대표나 집행 책임자가 아니라 실제로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모집했다. 그런 게 1차적으로 이미 실제 논의를 진행할 수 있는 분이어야 한다는 의무를 드렸다고 생각한다. 발의

문 토론하면서 마지막에 결의문을 채택하는 순서가 있다. 추진위원들은 무엇을 해야하는가, 어떤 책임감과 의무감을 가지고 해야하는가 26페이지 결의문 말미에 써왔다. 추상적일 수도 있지만 적극적으로 이 선언의 내용에 대해 공부하고 의견 개진, 성안하는 데 함께해야 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한 번 이상의 토론회를 한다는 거다. 4.16 인권선언 준비하면서 고민했던 게 각 지역까지 세월호 촛불, 분향소 등이 많이 있었는데 그 네트워크나 지역에서 끊어지기도 하고 소강 상태가 된 것도 있다. 이 1주기가 지나면서 인권선언을 계기로 그때의 네트워크를 살려내고 그분들과 함께 계속적으로 세월호 참사와 안전, 존엄에 대한 이야기를 해나가자는 취지에서 소통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다. 304인 또는 더 늘어나는 시민위원들에게는 1차적으로 304인 결의문 채택을 통해 서로에게 책임과 의무를 부여하고 이런 것들을 시민위원들도 해주면 좋다.

이승원, 선언의 채택 조직이 어떻게 되는 건지?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명의로 선언되는 건지 304인 혹은 +@로 해서 선언되는 건지.

덕진, 절차가 많으니 헷갈리실 수 있다. 대책회의 명의로 선언은 아니고 그 과정도 토론해야 하는데 지금 생각은 추진위원, 시민위원을 모시고 5월 9일 이후에도 시민위원은 계속 함께 할 수 있다. 당연히 함께 선언이 되고 12월 10일에 최종안이 만들어져서 이걸 완전히 공개하면서 이 선언에 동의하는 분들을 모집하는 게 어떨겠느냐, 그 방식은 연명이든 신문광고든 방식에 대해서는 앞으로 논의해야 한다. 최대한 많은 분들에게 선언문을 읽히고 동참하는 과정을 만들어보려고 한다. 이 선언문은 시민들의 이름으로 발표되는 거다.

이승원, 원래 공금했던 건 선언이라는 건 어떤 거든 채택자가 누구냐의 따라 권위가 실려지는 거다. 말씀하신 것은 가급적 많은 시민들이 선언하자는 거라면 시민위원은 12.10 최종안 만들어지기까지, 선언 채택 전까지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름을 걸 수 있도록 모집한다고 보면 되는 건지?

미류, 비슷한 질문의 연장선에 있는 것 같은데 4.16 인권선언운동을 추진해왔던 사람들한테 인권선언운동에서 가장 중요한 과정은 풀뿌리 토론이다. 추진위원과 시민위원은 간단히 말하면 풀뿌리 토론의 조직자다. 토론을 조직할 사람. 사람들을 모아서 토론을 부칠 사람들. 다른 사람들 생각은 어떤지 같이 먼저 들어보는 토론회가 5월 9일이고 거기서 부족하면 토론을 준비하기 위해 공부도 해야하고, 다양한 준비를 해야하고 이게 자발적 책임이다. 그 이후에 토론에 참여하는 사람들, 그걸 갖고 행동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은 시민참여단이라든지 그에 적절한 모집 계획을 갖고 추진을 할 거고 지금 오늘 논의하는 추진단은 시민위원까지 포함해서 풀뿌리 토론의 조직자로서의 책임을 다 하겠다는 사람들의 모임일 것 같다.

혜진, 이번 자료에서 지난 번에 보고를 드렸던 과정에 대한 게 빠져있어서 많은 분들이 궁금증을 가졌던 것 같다. 지난 자료에서 3월 12일에 논의한 내용은 5.9에 첫 번째 토론이 시작되고 5.9 토론을 계기로 304회의 풀뿌리 토론을 하겠다는 핵심이고 이걸 조직해주는 분들이 오늘 모인 추진위원들과 자발적으로 모이는 시민위원들이다. 그 토론회 내용 전체를 모아서 12.10 안이 발표된다. 이 안이 발표된다고 하더라도 이걸 얼마나 대중적으로 모어나갈 것인가가 필요하다. 서명방식으로 할지 동의를 표시하는 다른 형태로 할지 최대한 많은 이름을 그때부터는 모아서 내년 4.16에 공식적으로 제정하자는 거다. 많은 질문들을 주셨는데 갈 길이 멀다. 조금 더 궁금한 게 있으신지. 아니면 함께 논의할 내용들이?

박은희, 304명과 관련해서는 생각이든 게 지금 304명이 개인의 이름이다. 어딘가에 소속은 되어있지만 한 개인의 이름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304인의 이름 리스트만 보고서 이 사람

들로 인해서 어떤 조직이 시작된다, 이 사람들의 이름 하나하나가 주는 무게감이 별로 잘 안 느껴진다. 차라리 단체 이름으로도 들어갈 수 있게 하면 어떨지. 사회에 다양한 그룹들이 있는데 여러 단체들의 이름으로 304명 이름에 넣는 게 파급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럼 이 단체 안에서 단체 별로 이런 우리가 생각하는 토론이나 모임은 단체로 던져지니까 그 안에서 자발적으로 그들의 과제로 품고 들어갈 수 있을 것 같다. 우리가 너무 304이라고 해서 개개인 304인을 모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것보다 인권문제에 대해서 이번에 생각을 하게 된 많은 단체들이 있을 텐데 그들이 이름을 올리고 그 중에서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사람들을 참여시켜서 모아보면 어떨까 생각 한 가지가 있다. 두 번째는 계층 문제다. 여기 오신 분들은 인권활동 하셨던 분들이라든지 이미 알고 있는 분들이다. 이 304명이 될지 단체가 될지 이 추진단 안에는 지금보다는 5.9까지는 더 다양한 계층과 사람들이 들어와야 되지 않나 싶다. 대학생도 들어올 수도 있고 고등학생 중에서도 활발하게 활동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사람들의 참여도 필요하다. 짧은 기간이지만 찾아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혜진; 방금 제안한 건 304인이 지역과 부문에서 단체를 대표하시는 분들 많이 요청드리긴 했지만 한 개인이 아니라 단체, 지역을 대표하는 분들이라는 게 좀 더 명명될 수 있도록 하고 다른 부문에서도 더 조직하자는 제안이셨다. 제안주신 내용들을 이후에도 잘 받아서 정리하는 것으로 하고 추진단을 304인과 시민위원들로 신청 받아서 구성하는 걸로 하겠다.

실행팀은 성안팀, 조직팀, 토론기획팀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발적으로 결의하고 함께해주신 분들이 많았다. 일일이 인사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구체적인 실무들을 함께해주는 실행 팀분들은 잠깐 일어나서 인사해주세요.

59 토론회를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제목, 4가지 주제에 관한 의견, 토론회 방식, 촉진자 요청

1. 토론회 제목

59 전체토론회는 어떤 의미가 담겨야 한다는 것 중심으로 해주시면 작명은 실행팀에 넘기는 것으로 하자. 어떤 의미가 주요하게 담겼으면 좋겠는지 의견주세요. 이후 어떻게 토론하면 좋을지 샘플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진우: 작명까지 부탁드리는 이유는 3.12 회의 때 인준받지 않은 실행팀에서 준비해서 던졌더니 니들이 뭔데 하는 반응들이 있어서 조심스러웠다. ^6페이지처럼 이렇게 해도 되면 결정을 해주시면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모두들 동의하고, 다른 의견 없다.

2. 추진단 전체회의 토론 주제

김희진; 첫 번째 질문에서 다 대답을 못해. 왜 인권선언이어야 하는데? 라고 오히려 역질문을 같이 일하는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평범한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때는 왜 이것이 인권선언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설명들이 필요할 것 같다.

박기영; 전체회의 할 때 뒤에 초안으로 나온 선언문을 읽어보니까 어렵고 생경한 단어들도 있어서 이를 읽는 다양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인권에 대한 이해가 다르지 않을까. 조금 더 쉽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전체가 공식적으로 만나는 큰 자리인데 쉬운 교육 또는 안내가 같이 배치되어 있었으면 좋겠다.

명숙; 4.16 인권선언의 의미. 와닿지는 않을 것 같다. 왜 인권선언을 만들려고 하는가로 달라져야 할 것 같다. 선언에서 담고자하는 이야기가 이 경험들이 각자에게 유가족의 의미와 저

의 의미가 비슷하고 또 다를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담아내는 과정이라고 할 때 4.16 인권 선언을 왜 담아내려고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야 할 것 같다. 왜 이것이 인권의 언어로 이야기해야 할지.

김연지: 의미를 먼저 던져주기 보다는 자세히 설명을 못듣고 왔는데 회의를 하면서 침해받은 인권이 뭐가 있을지를 계속 생각하게 되었다. 2번을 먼저 제시하고 우리가 침해당한 게 무엇이 있을까 생각하다 보면 인권이 침해당했음을 깨닫게 되고 그러다보면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박성현: 안산 복지관 네트워크 차원에서 304명의 일반 시민에게 세월호 참사가 어떤 의미인지에 대한 영상제작을 하고 있다. 페이스북 페이지에 있다. 본인의 권리와 굉장히 연결되어 있다는 이야기로 시작해. 2번이 먼저 이야기가 되고, 그리고 나서 인권이 관련이 있다는 논의가 이어지고 그 다음에 인권 선언의 의미 그리고 행동 계획에 대한 이야기가 되어야. 인권 선언에 이런 것들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2차 토론회에서 행동 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어떨지. 일반 시민들에게는 너무 어렵게 너희들 세계의 이야기로 느껴지지 않을 수 있는 방법으로 진행되었으면 좋겠다.

정정훈: 성안팀, 토론 기획팀에서 같이 질문 만들었다. 왜 4.16이 인권의 문제인가. 그것을 왜 인권 선언으로 풀어볼 것인가를 가장 먼저 토론해보자는 이야기가 있었다. 의견을 들어봤을 때는 선언문을 만들 때 참여하는 인권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 자기 문제와 연결시켜서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겠다.

김광아: 앞의 의견에 전반적으로 동의한다. 부가적인 경험을 말하자면 장차법 초안 만드려던 초기에 각 경험들을 모으는데 당황스러웠던 경험도 있었다. 사례를 모아서 보내달라고 요청했는데. 휴일 아침에 지방에서 전화가 왔다. 실무자가 화를 내면서 차별이 뭔지 설명을 해주셔야죠. 제가 장애인이니깐 다른 분들도 당연히 차별 경험을 이야기하면 될 줄 알았는데 차별이 무엇인지 설명해야 했던 것. 그냥 살면서 내가 장애인이 아니었다라면, 겪지 않았어도 좋을 불편함, 불쾌감 등을 모아서 보내달라고 설명하고 가자고 했던 적이 있었다. 4.16 인권 선언이라고 하면 다른 분들에게도 구체화 되어서 서술하기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왜 4.16이 인권의 문제인가로 질문을 풀어서 제시했으면 좋겠고, 4.16 참사는 나의 삶에서 어떻게 해석이 되었나로 시작해서 개인의 권리와 결부된 내용을 재구성하는 것과 주석 달기를 나누었으면 한다. 의미를 짚어보고 주석 달기를 하면 사고를 풍부하게 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혜진: 전체적인 의견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경험부터 출발하여 왜 인권의 문제인지 정리하는 방식으로 토론하자는 제안을 주셨고. 쉬운 교육과 안내를 앞부분에 배치해달라는 요청을 주셨다.

정정훈: 40개 모듬이 만들어질 때 다 똑같은 주제로 토론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토론 구성이 기본은 2가지. 8페이지 설명. 모든 모듬이 4시간 동안 순서대로 하게 되는 것 인 것 같아서 3안이나오는 것인지?

혜진: 방식과 연결해서 다시 한 번 토론을. 2를 먼저하고 1을 그 다음에 한다기 보다는 자연스럽게 연결되어야 하는 것으로 받아들여. 경험을 이야기하면 결과적으로 인권의 문제로 가야 하겠구나 하는 결론이나오는 과정으로 토론을 배치하자는 과정으로 이해. 2로부터 1로 가는 것이 하나의 토론이다.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 토론 방식을 결정하자. 이런 토론 주제는 꼭 넣었으면 하는 것이 있으시면 조금 더 의견을 받고 방식으로 넘어가겠다.

박은희: 2에서 시작해서 1로 가야한다는 것이 하나로 묶기가 쉽지 않을 듯. 충분히 4.16 참사에 대한 이야기를 각자 해야 할 듯 하다. 4.16 참사 과정에서 인간으로서 모욕감을 받았던 것에 포커스를 맞춘 질문을 던져주어야 할 듯. 존엄성을 침해받았던 지점이 어떤 것이었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고 이것이 끝난 다음에 인권 선언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하지 않을까. 내가 내 스스로 내가 주인이 되어서 선언하는 것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는 한번 더 짚어주어야 하지 않을까. 그룹을 나누어서 토론하는 것보다는 같은 주제로 토론하는 것이 더 효과적

이지 않을까. 안산 1000인토론에서 같은 주제로 토론하고 전체로 모아가는 과정들을 거쳤었다.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같이 토론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야 하기 때문에.

남미옥; 나에게 4.16참사는 어떤 경험이었나. 한마디로 끔찍한 경험이었다고 대답할 듯. 4.16참사가 각자의 위치에서 어떻게 다가왔나 라든지 내가 학생, 선원 등이었으면 어땠을지라고 질문을 나눠서 할 수도. 인권이 존중이 되어야 하지라고 포괄적으로 생각하지 어떤 것이 인권을 침해인지 잘 몰라. 공부가 되어야 하는데, 시간이 별로 없었으니까 질문을 나눠서 하면 토론이 풍성하게 될 것 같다.

정경원; 59 토론은 모여서 토론하고 끝내는 자리가 아니라 돌아가서 토론을 조직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야 하는 자리다. 4가지로 잡았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서 조직에서 세부적으로 어떤 주제들을 건드려줄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도 나와야 할 것 같고. 깊이 있는 모듬토론이 필요할 것 같고, 이를 같이 공유하는 시간이 꼭 필요할 듯 하다. 자기모듬에만 집중될 가능성이 있다.

박성현; 안산 1000인 토론 진행했었다. 앞 부분은 영상을 준비해서 세월호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고, 1000인 토론 이후에는 4가지 주제를 선정하여 또 진행하였다. 정리된 자료집과 영상을 꼭 틀도록 이야기를 했다. 1000인 토론 방식이 기계를 가지고 번호를 눌러서 그 내용이 최대한 집결을 해서 보여질 수 있도록 해서 다른 테이블에서 어떤 의견을 나누는지 공유가 되었다. 세월호 이후 자신의 경험에 대해 이야기 하고, 영상을 통해 인권에 대해 이야기 하고, 그 후 나에게 인권이란 하면서 전체토론을 진행하고. 향후는 2차토론으로 진행했으면. 지역에서는 이 방식 그대로를 토론회를 할 것인지 이슈들 중심으로 토론회를 할 것인지를 판단하면서 진행하면 어떨지.

박진; 모든 질문은 명료하고 간소화 되어야 한다. 2번 4.16참사가 침해한 권리는 무엇인가로 해야만 토론이 가능할 듯하다. 우리는 직관적으로 4.16참사가 인권의 문제로 연결됨을 판단하고 있는데, 왜 인권인가를 되질문 했을 때는 어려워졌다. 강의를 하면 제가 갖고 있었던 것들이 인권의 이름으로 정리가 된다는 이야기를. 발의문 자체를 인권교육으로 전체 토론자들에게 정리를 해줘야 가능할 듯.

혜진; 이 전체를 모아서 최종 결정을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이것을 모아서 실행팀이 한번 더 정리해서 토론회 전 워크샵 때 정돈된 형태로 이야기를 해야할 듯. 영상 등 정리된 자료를 전체가 보아야 한다, 전체가 내용을 공유하는 자리가 필요하다. 4가지 각각이 의미가 있다. 이 내용을 조금 더 모아서 실행팀에서 한번 더 논의 후 토론회 전에 의견을 드리고, 워크샵 때. 명숙; 교육, 전체토론을 해야한다고 했을 때 4가지 주제는 많은 것 같다. 행동과제는 2차 과정으로 하면 어떨까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송경상; 하나는 4.16인권선언 제안문을 읽어봤는데, 너무 어렵다. 전문이 한 문장으로 되어 있다. 기미독립선언문 읽는 느낌이다. 이해 못할 용어들이 너무 많다. 첫 문장부터 비문. 존엄과 존귀는 뭐가 다른지 등. 청소년과도 같이 소통이 되려면 내용은 같되 문구를 쉽게 다듬는 작업이 필요할 듯하다. 두 번째는 토론의 목적이 개인의 인권의식에 대한 것들에 대해 생각하고 느끼고 실천하는 것이라고 할 때, 성인이거나 청소년일 수 있는데. 자기 삶의 경험과 연관되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이야기해야 하지 않을까. 남의 이야기를 듣고 자기 것으로 생각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나의 삶에서 권리를 국가로부터 침해당한 사례는 무엇인가. 그것과 세월호를 연관시키면서 공통된 인간의 존엄과 인권으로 나아갈 수 있는.

혜진; 토론의 주제와 관련해서는 여기서 확정짓지 않고 의견을 충분히 받아서 정리하여 의견을 묻는 절차를 거치겠다. 의견을 못주신 분들은 끝날 때 적어주시거나 메일을 보내달라. 반드시 그 전에 의견을 반영하여 정리할 수 있도록. 안건 주제를 줄여서 토론을 풍부히 하자는 의견을 주신 것도 포함하여 실행팀에서 다시한 번 논의를 하겠다.

40명의 촉진자가 필요. 59 촉진자들이 진행해야 함. 5/7 2시 워크샵을 준비하고 있다. 촉진자 자원을 해주실 분들이 있으시겠죠? 굉장히 많은 분들이 해주실 것이라 믿고. 손을 들어주시

기를 바랍니다. 끝나고 반드시 표현을 해주세요.

논의안건 두 번째, 주요한 것이 남아 있다. 10분간 쉬었다가 바로 시작하겠다. 4시 20분에 시작.

혜진; 굉장히 오랜 시간 논의해왔고, 우리가 함께 토론할 첫 번째 글이기 때문에 많이 떨린다. 문장 하나, 단어 등은 의견으로만 받겠다. 풀뿌리 토론의 기초자료로 적합한지에 대한 의견을 주었으면 좋겠다. 그 외에 구체적인 의견들은 따로 쪽 받아모아서 어떻게 반영작업을 거칠 것인지 논의를 다시 한 번 정리하여 말씀 드리는 것으로 하겠다.

[발의문 발제] 정정훈

인권선언을 만들어가기 위한 토론의 기초자료로서 작성. 국제인권문헌, 세계인권선언문 등을 참고하였다. 아무 근거없이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싸움 속에서 만들어진 권위있는 문서의 근거에 기대서 이야기를 하려는 문제의식이 있다. 전체 구성은 전문, 원칙, 중요한 개념에 대한 정의, 4.16을 비롯한 재난과 참사와 관련한 일반적 권리, 피해자의 권리, 존엄과 안전에 관한 의무와 책임(정부, 공무원, 기업, 언론, 일반 시민)

일반적 원칙이 있고, 원칙으로부터 파생된 권리와 의무가 무엇인지로 구성하였다.

혜진; 계속 강조하여 이야기했던 것처럼 선언의 예시이고, 304회의 토론을 통해 바뀔 수 있음을 염두에 두되 토론을 충분히 하기 위하여 기초자료로 제시되는 것임을 생각해주시길 바란다. 토론을 위한 기초자료로 충분한가, 채워져야 될 것과 보완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를 이야기해주시기를 바란다. 너무 어렵다부터 시작해서, 표현에 대한 포괄적 질문부터 구조와 방식, 구체적인 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의견이다 있을 수 있어서 나눠서 이야기해보려고 하다가 모든 의견을 다 받아보고, 임의로 분류해서 오늘 결정해야 할 것과 남겨놓고 논의해야 할 것으로 해서 이야기를 진행하기로 하자. 질문, 의견도 좋다.

송주명; 굉장히 많은 고민의 흔적이 역력하다. 인권선언의 취지를 잘 살리기 위해서 애 많이 쓰셨다. 선언을 왜 하려고 하는가를 생각해 보면 4.16참사가 신자유주의 대한민국이 망가뜨려놓은 우리 사회를 정확하게 성찰하고, 그 성찰을 통해서 새로운 대한민국이 만들어져야 하겠다. 이 대한민국이 우리들에게 보장해야 할 기본적인 가치와 인권이 무엇인가가 분명히 드러나야 한다. 세월호특별법으로 진행될 진상조사, 책임자처벌 등 후속작업들도 대단히 중요하다.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한 획을 긋는 의미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4.16인권선언을 구조적으로 참고한 것이 국제인권법으로 되어 있었는데, 인권선언이 무엇을 하기 위한 것인가라는 의문이 든다. 법을 만들기 위한 것인가. 시민헌장을 만들기 위한 것인가. 법도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 법학자의 도움을 받아 시민들의 의견을 대폭 받아들여 빠짐없이 기록하여 4.16인권기본법으로 만들어갈 수도 있다. 진상조사, 책임규명 그 이후를 넘어서는 새로운 설계를 법적으로 뒷받침하게 되는 것이다. 그 법은 생명, 인권경시로 연결될 수 있는 여러 정책, 행위들을 규제할 수 있다. 정부에서 민영화할 때, 이 법으로 정부의 행동을 제약할 수 있다. 시민들의 힘을 모아서 만들어갈 수 있다. 그야말로 세월호 인권기본법도 가능할 것 같다. 이 길로 갈 것인지. 시민헌장으로 가게 된다면, 시민들이 적어도 4.16을 거치면서 놓쳐서는 안 될 가치, 삶의 기준이 무엇일까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어야 한다. 이를 겪으면서 반복되지 않고 조금 더 나아가려면 시민들이 어떻게 싸우고 교육할지를 잘 정리하는 방식으로. 시민공동체가 지향해나가야 하는 새로운 합의라는 차원. 표현의 완성도가 대단히 높아야 하며, 시민들의 참여도 체계적이고 더 넓어져야 할 것 같다. 시민적인 언어와 개념도 대단히 중요할 것 같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생각해 보면 지금 제안된 문헌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을 담고 있는데, 인권기본법으로 가려면 국가의 행위 등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드러내서 어떻게 규율할 것인지를. 시민헌장으로 가려면 조금 더 시민적 언어로

간추려져야 할 듯. 시민적 사고방식으로 구조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함. 이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인권선언이 어떤 위상을 가져야할지가 잘 풀려나갔으면 한다.

민교협에서는 쪽 고민해왔는데 인권기본법이 더 맞다고 생각했다. 시민들이 지금까지 가지고 왔던 비통함, 비참함을 넘어선 새로운 사회를 그리려고 했을 때 그것이 법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하고 그것이 훨씬 더 체계적이지 않은가.

혜진: 큰 틀의 이야기를 먼저 해주셨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이야기도 좋고, 계속 견해를 이어서 받도록 하겠다.

홍조: 항목에서 내용들이 잘 구성되어 있는 것 같지만 1년 전 겪었던 가장 처참했던 상황은 구호과정의 실패. 다양한 권리관련 문헌들, 긴급구호 등은 충분히 설명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피해자의 권리가 될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하더라도 이에 대한 내용은 따로 항목으로 기술되어야 할 듯. 이왕이면, 인권선언이 다양한 언어로 번역되어 나오면 좋겠다. 배포하는 수준이 아니라 다양한 베이스의 분들이 추진단에 함께하면 좋겠다.

창현엄마: 16조 재발방지, 제도개혁에 대한 권리가 될 수도 있고, 21조 교육의 책임에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16일을 되짚어보면 우리 아이들의 판단력이 어른들보다 훨씬 나왔다.

옳았다. 우리 아이들한테 선거권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수학여행에 대해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장소도 그렇고. 전반에 대해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들이 하나도 없었고. 공부, 진로 등도 자신들이 결정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를 위해서는 선거권이 들어야 한다는 것이 포함되었으면.

명숙: 송주명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관련하여 판단은 어렵지만. 인권선언이라고 해서, 세계인권선언, 프랑스혁명당시 선언, 2008인권헌장 등과 같이 생각했는데 국제인권법 체계를 따랐고. 순서를 따랐는데, 이것이 좋을지는 논의가 필요할 듯. 해설서가 있어야 하고. 세월호 참사는 구체적인 권리가 더 이야기되는 게 필요하다는 점에서는 법체계가 맞지 않을 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느 것이 좋을지는 고민이 필요함. 전문에 대한 해설에서 세월호 참사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2008 촛불의 시민들 힘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고, 세월호 참사는 빼앗겼던 권리와 되찾기 위한 실천들이 있었는데 이것이 전문에 잘 담겨야 하는데, 세월호 참사에 관련된 이야기가 전반적으로 덜 다뤄진 것 같아서. 이에 대한 교훈, 절망감 등. 시대적, 역사적 의미를 갖게 할 때.

***: 오기 전에 보긴 봤는데 창피해서 첫 번째 회의부터 얘기할까 말까 했는데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다. 저같은 경우엔 인권선언문 자체를 모른다. 시민들에게 가깝게 와닿으려면, 인권선언문 검색해보고 했는데 자료를 얻을 수 있는 게 별로 없었다. 그거 봤는데 너무 그 자료 좀 혹시 공유해주실 수 있으면 해줬으면 한다. 이걸 처음 읽었을 때 너무 막연하고 너무 포괄적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게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으로 되겠지만 와닿지 않는다는 막연한 느낌이 강했다. 전문에서 하며~하며, ~~하며 그 문장이 너무 길어져서 우리가 왜 이걸 해야 되는지 정리가 잘 안 됐다. 1,2,3,4 나열하는 식으로 해서 구체적인 상황이나 필요한 이유 등을 집어줘서 국민적 공감을 얻어낼 수 있는 문장이 더 사회 전반적으로 시민 쪽으로 간다고 하면 그게 좋을 것 같다. 4.16에 대해서 생각했던 건 피해자가 아까 여기서도 피해자 규정에 대한 거기서부터 시작을 했는데. 12조. 피해자에 대한 인정. 우리는 피해자가 지목한 가해자가 가해자인가조차 인지하지 않는다. 피해자가 이 사람이 범인일 거라고 지목했을 때 그걸 이유를 불문하고 기본적으로 조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책임의 여부를 확실히 가르는 걸 기본으로 삼는 항목도 있었으면 한다. 치유에 대한 게 여러 가지 무엇을 해준다, 보상을 해준다 이런 것도 있지만 우리가 가장 치유 받을 수 있는 건 진실 규명이다. 진실을 알려고 하고 뭐가 진실인지 파헤쳐서 무엇이 잘못됐는지 알아야만 그게 가장 근본적인 방법이라는 것도 내용으로 담았으면 한다.

***: 약간의 이견일 수도 있다. 일단은 먼저 지금까지 모든 인권선언문은 엘리트식의 표현이

었다. 1부에서 말했다시피 이 선언이 풀뿌리토론을 통해 제안, 채택되는 거라면 선언방식은 기존 방식을 벗어나야 하지 않을까. 형식일 수도 있고 내용일 수도 있다. 세월호라는 사건, 사고를 통해서 우리가 받은 경험은 기존 프레임에서 담지 못했던 것이기 때문에 더 큰 충격이다. 어떤 이론이나 프레임으로도 설명할 수 없다. 새로운 내용이 담겨야 하고 그것이 인권선언의 가장 큰 의미일 거다. 송주명 선생님이 말씀하신 두 가지가 다 가능하다고 본다. 선언을 하고 그제 헌장으로 가고 그것이 기본법으로 가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선언을 쓸 때는 쉬운 언어로 쓰는 것과 필요한 게 담기는 건 다르다고 본다. 헌법 2조 행복추구권이라든가 재난의 안전관리법도 있고, 일반시민들에게 설득력이 있기 위해서 그들도 이미 동의한 원칙이나 정신도 담김으로써 토론이 풍부해질 수 있지 않을까. 세계인권선언이 전쟁을 기반으로 해서 새로운 사회에 대한 선언이다. 그러나 그것이 전쟁에 대해서만 말하지 않았고 이후 사회에 대해서도 말했다. 이 선언은 단지 이것이 우리끼리 위로의 방식이 아니라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지 못하는 세대도 과거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새로운 사회를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이 담겨야 하지 않겠나. 세월호에서 시작하지만 세월호를 넘어서는 것이 많은 피해자들을 위로하고 긍정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인권선언이지만 자연권이라는 것은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 내가 피해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 명제인데 우리가 여러 가지 처벌과 책임이라는 표현이 많이 있는데 이것은 당연히 담아야 할 내용이지만 이것과 함께 아직은 지나친 표현일 수도 있겠지만 선언이라면 용서와 화해에 대한 내용이 담겨야 하지 않을까. 인권 선언이고 인권이라는 게 둘 이상의 관계고 타자 없이 존재할 수 없는 것이 사회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가해자가 용서를 받고 피해자와 함께 공동체를 구성했을 때 새로운 인권선언이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용서와 화해라는 표현이 적절치 모르겠으나 피해자가해자라는 관계를 넘어선 새로운 내용이 담겨야 하지 않을까.

남미옥; 쉬운 언어로 했으면 좋겠다. 법조계도 쉬운 언어 쓰기 운동같은 거 한다고 들었다. 우리 사회가 이후 모습을 담자는 것에 동의하는데 양극화 등 실제로 행동하거나 자기 삶의 방식을 바꾸려고 하지 않는다, 일반 시민들도. 우리 선언문에 약자를 위한 언어나 힘의 균형등이 필요하다고 본다.

재민; 장애인 인권운동하는 사람인데 과연 이 선언문을 제안문을 가지고 지적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나 이런 토론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런 논의를 좀 필요하다고 본다. 나중에 선언문이 나왔을 때는 요약본, 주석이 달린 해설 등이 나올 수 있다 생각하는 데 그 전에 만드는 과정에서부터 고려되어야 하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싶다. 원칙에 있어서 권리충돌 상황에서의 원칙이 있었으면 한다. 이권 권리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하는가 이것에 대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재산을 증식할 수 있는 권리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것과 안전권이 충돌할 때 우리는 어떤 걸 우선해야 할까. 이게 구체적으로 얘기되지 않으면 허공에다 권리를 외치는 듯한 느낌이 들기도 한다. 이것들에 대해서 논의를 해주면 좋겠다.

***: 배상에 대한 권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다. 우리 사회 전반적인 부분을 볼 때 사회적 약자에 대한 권리들을 대부분 얘기를 하신다. 우리 상위 1%에 속하지 못한 사람들은 대부분 사회적 약자에 속해있다고 보는데 배상에 대한 게 사실상 누구의 책임인가에 따라서 배상에 대한 수혜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인권이든 뭐든 삶을 살아가는데 있어서 권리는 약자라는 우리가 보기에 듣기 좀 좋은 얘기는 아닌 것 같다. 인권의 가장 중요한 건 사회 전반적으로 돈하고 결부되어서 평가되는 게 많다. 이왕이면 돈이랑 결부되어서 평가할 것 같으면 국가가 책임지지 못할만큼의 사람의 존엄성을 가치를 높여가는 거다. 쉽게 얘기하면 그 배상의 범위를 굉장히 높여서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의 생명이 어느 정도로 중요하냐. 지금 세월호 당사자 가족들을 보면 평가 기준이랄지 배상

의 보상 기준을 보면 터무니없는 기준이다. 어떻게 보면 일용직 근로자의 평균 수입을 갖고 얘기하고 하는데 그런 정말 약자들, 최저생계를 하는 사람들의 기준이다. 그 기준 자체가 잘못됐다. 상위 1%에 갈 수도 있는 사람들이 있을거다, 피해자들 중에는. 근데 최저수준에 맞춰져있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 최고 수준의 인권이라면 최고 수준에도달하는 기준들을 적용해야된다. 그랬을 때 모든 법 제도는 바뀌어갈거고 안전, 인권에 대해서도 국가적인 측면에서도 비용과 결부되면 더 신경쓸거다. 존엄성을 돈으로 평가할 수 없지만 그런 계 상위에 있어야 인간의 존엄성은 그만큼 가치가 올라간다는거다. 그런 기준을 상위로 만드는 게 우선이지 않을까. 일례로 며칠 전에 뉴스를 듣는데 그런 얘기가 나왔다. 자동차를 상대로 해서 부모가 4살짜리 아이가 교통사고 났는데 차에서 흐르던 기름에 애가 죽은거다. 자동차 사를 상대로 소송을 해서 법원에서 승소를 했고 1600억이라는 보상을 하라고 했다. 그런 배상 등이 구축이 된다면 사람의 가치는 당연히 올라가지 않을까. 그런 기준을 좀 올리는 게 최우선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 보면 정치적 책임 등이 있는데 사실 여기 나와있는 부분에 대해서 피드백을 하기는 쉽지 않다. 이 내용을 이해하는 것도 힘들다. 근데 정치적 책임이 있는데 여기 청소년이 빠진 게 유감이다. 그래서 청소년의 말을 하거나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명시가 되어있으면 좋겠다. 이게 있을 때 약간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따로 쉬운 말로 풀어서 해설책자라고 하셨는데 이거 자체를 쉽게 해서 만들었으면 한다. 우리 연령층이 접하기 쉽게.

이현숙: 내용에 대한 고민인데 세월호 이후 1년동안 친구들과 얘기했던 것들 중에서 되게 한국사회에서 충격적인 모습은 2차 가해였다. 여기 내용에서 조금은 더 중요하게 다뤄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부분이다. 아직까지 주변 사람들은 2차 가해 말조차도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세월호 이후에 1차 가해, 사고 자체도 문제였지만 한국에서 나온 여론들과 수 많은 루머들이 있었다. 모욕적이라고 느껴졌고 어떻게 해야될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세월호 인권선언이라면 과정도 문제가 많지만 이후에 사고 처리하는 과정에서의 2차 가해를 얼마나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고 있다. 여기에 좀더 중요하게 들어갔으면 좋겠다.

문경란: 그 전에 서울시민인권헌장 참여하면서 경험이 있어서 참여하게 됐다. 풀뿌리 토론 과정에서 어떻게 이것들을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 있게 할지 고민이 됐다. 어느정도 성안이 있는 채로 받아들여지게 되면 토론 과정에서 어떤 얘기를 할 수 있을지 궁금해할 것 같다. 우리가 인권헌장 내에서도 얘기 했던 게 우리가 권리목록을 무엇을 넣으면 좋겠는지 얘기하는 과정이 있었다. 풀어서 얘기해주길 바라는 등의 시민들 의견이 있었다. 그 과정에서 감정들이 사실 있었다. 이러한 인권선언 과정에서 시민들이 참여한 과정을 본다면 권리목록에서 실현할 수 있게 세부적인 게 더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차별이나 평등 내용이 더 신경쓰이게 돼서 인권선언에 대해서 큰 마음으로 오게 됐는데 사회적 소수자 부분에 대해서 좀더 명확하게 필요한 부분들을 나열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 논의가 진행될수록 개인적인 생각이 한 곳으로 모아진다. 제안문에 나와있는 형식이 인권선언의 형식과 기본법의 형식이 혼용되어 있다. 어렵다고 하시는데 두 가지 흐름이 있어야 한다. 기본적으로 누구나 알고 싶은 언어로 헌장을 만들고 제가 봤을 때 이 제안문에도 많은 내용들이 있다. 평등과 관련되는 부분들 내지는 여타 다른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이 우리가 선언을 발표하는 것에 그치려는 건 아니라면 명징하게 주장해야 될 선언? 헌장과 기본법이 따로 분리되서 이후에 이것이 국회에서도 입법까지 가는 걸 생각하는 건 차후 문제겠지만 지금 인권헌장을 모르는 시민들이 봤을 때 쉬우려면 헌장과 세밀하고 촘촘한 기본법을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유해정: 사실 처음 봐서 뭐라고 크게 얘기하긴 어려운데 썩 보면서 구절구절 걸리는 게 있었다. 4.16 인권선언이 만들어진 게 우리사회 안전에 대한 권리로서의 무엇인가라고 생각했는데 안전에 대한 권리가 16,18페이지에 들어가있는 것 같다. 안전에 대한 권리가 무엇인지 명징하게 드러난 게 없다고 생각이 든다. 이 선언이 추구하는 게 무엇인지 분명히 보여줬으면 한다. 두 번째는 앞에서 해설서가 필요하다. 헌장이 있고 그걸 세부화할 수 있는 내용들이 필요하다. 동의하면서 선언 조항을 보면 어떤 건 선언 자체만 되었다. 21페이지 15조 5항의 경우 제도개선을 약속한다 선언하면 결사, 집회 자유 부분은 어떤 의의를 갖는지 설명하고 있고 사상, 종교, 양심 자유에는 자유의 내용을 쓰고 있다. 일관성 없이 선언, 내용, 의미 풀기 등이 섞여있다. 형식을 맞춰주고 더 설명할 필요가 있으면 해설서가 필요하다. 말은 너무나 장황한데 핵심은 잘 드러나지 않고 존엄성이라는 말 중복되게 쓰이면서 이것도 명징하게 다가오지 않는다. 일관성 있게 선언을 정리하고 사람들에게 제안할 때도 자기 말을 할 여지를 줘야지 의의, 내용을 다 서술하면 문제가 드러난다. 세 번째는 세월호 참사로 인해서 만들어진 건 전문에서 표현하고 있는데도 조항에 보면 21페이지 18조 위에 보면 특히 세월호 사건이 되었기도 하고 참사란 무엇인가에 대해 규정도 있다. 선언 조항에 세월호 참사가 왜 명시되어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 선언이 세월호에 기인하고 있다고 보여주면 된다. 다른 참사에 대한 배제의 문제가 발생하고 그로 인한 소외의 문제가 발생한다. 이 부분은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

혜진: 내가 이 이야기는 꼭 해야 된다는 의견을 주실 것이 남아있는 분 손들어주세요. 6명정도 손들. 이분들 이야기를 듣고, 정돈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최원: 세월호 이후 1년 동안 가장 문제점으로 느꼈던 것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이 생각해 봐야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참사가 일어나고 피해를 당하고, 가해자가 있고 처벌, 배상, 재발방지를 하는 프레임인데. 이로서 권리들이 짜여져 있고. 어떻게 보면 분류가 자동적으로 되어 있는. 왜 도대체 이런 권리들이 전혀 실효성을 갖지 못하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생각. 시민들의 국가에 대해 개입할 수 있는 것들을 강화시키는 방안으로. 소환권, 탄핵할 수 있는 권리, 조사발동 발의권 등의 내용들이 들어가 준다면. 또 이를 통해서 단순히 국가가 의무가 있다 정도가 아니라 시민들이 국가에 이를 요구할 수 있고, 그렇게 되지 않았을 때 프랑스혁명, 미국 독립선언처럼 끌어내릴 수 있는 언어들 분명하게 사용하였으면 좋겠다. 밋밋하다는 생각이 든다.

난다: 청소년 활동가들이 왔다. 교육 문제에 있어서 초점을 맞추게 되었다. 고민, 의견이 나오면서 같이 고민이 드는 것이 다양한 정체성에 따라서 더 많이 주요하게 요구되고 포함되어야 하는 권리들에 대한. 청소년 문제에 있어서 세월호 참사라고 하는 것이 더 크게 이야기되었던 것 중 하나가 굉장히 많은 수의 학생들이 피해를 당한 것인데, 그 부분에서 계속 주목되는 문제는 입시 위주의 교육 속에서 권위자 혹은 어른들에게 복종하는 것만을 중심으로 교육받게 되는 현실들이 세월호 참사를 불렀다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을 텐데. 교육에 대한 책임 관련. 보편적인 내용이 담겨있는데, 조금 더 구체적인 부분이 덜 들어가지 않았다. 교육 문제, 자유의 문제에 있어서 기존에 있었던 교육이 아니라 의심하고, 질문하고, 명령에 대해 거부하고 자유롭게 애도할 수 있는 것이 교육안에 들어가야 하는데 보편적인 접근으로만 되어 있는 것 같다. 구체적으로 언급이 될 수 있을까. 자칫하면 지금 정부에서 내놓고 있는 안전교육 강화, 재난교육 강화 정도의 내용으로 읽힐 우려도 있어서. 앞서서 많은 분들 말씀해주신 것처럼 용어가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다. 다양한 정체성을 가진 다양한 입장에서 요구되어야 할 권리들이 이 선언안에서 같이 이야기되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할지에 대한 고민이 들었다.

나영; 세가지. 하나는 59 진행방식에 대한 제안. 안을 보니까 말씀해주신 내용들에 많은 동의가 됨. 이안을 먼저 제시하고 얘기하는 것보다 참사의 의미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면서 여기서 나온 얘기들로 그룹을 묶어봤으면 좋겠고, 그럼 다른 주제들도 나올 것 같고 이도 고려하여 선언으로 구성될 수 있도록. 너무 이 주제에 얽매이지 않도록. 전문에서는 이윤 최고주의, 인간의 사물화 등. 이에 대한 내용이 많이 없음. 대부분의 인재로 인한 참사들이 이윤추구로 인해 발생하고 감추려고 할 때 더 대형참사가 되는데 이부분도 어떻게 녹여낼 수 있을지. 다른 국적, 인종을 가진 사람들도 참여할 수 있는 통로가 있었으면. 적극 동의하고. 내용에도 포함되어야 할 것 같다. 앞으로 또 이런 참사가 벌어진다면 이들은 어떻게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 이 선언에 담겼으면.

이나연; 재난, 참사, 피해 등. 재난으로 인해서 참사가 되는 과정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단어에 대한 정리가 필요할 것 같고. 이 선언문이 무엇을 위한 인권선언인가. 어떤 실효성을 원하는지 충분히 논의가 되지 못했던 것 같고. 이에 대한 토론이 먼저되어야 기본적인 흐름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명숙; 평등의 원칙을 기본원칙으로 이야기했는데, 권리에는 드러나지 않아. 원칙은 있지만 원칙에 따라서 성적지향, 이주, 나이, 가족지향 등에 상관없이 어떤 권리를 누릴 수 있다고 나오는데. 가족 형태가 달랐던 가족들에 대한 엄청난 모욕을 주었던 경험. 이주민들에 대한 것도. 이런 것들이 헌장이든 인권법의 형식이든 분명히 되어야 할 것 같고. 차별받는 소수자들의 권리가 명시되는 것이 중요하다. 두 번째는 배상에 대한 권리에서 배상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손상당한 존엄성, 건강권, 생명권을 대체할 수 없다는 것이 명시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함. 그러했을 때 배상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도 또한 드러나야. 피해자의 권리 관련. 진실규명, 차후 대책 등에도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도 포함되어야 할 듯. 선거권으로 대치되는 시민권. 시민의 정치적 책임에서 시민은 무엇인가? 청소년, 장애인 등등 어떻게 담아낼 수 있을지.

승원; 참사라는 개념이 재정의 되어야. 거대한 사건뿐만 아니라. 장애인의 이동관련 참사로 다가올 수 있어. 거대한 참사만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인권선언이 담아야 하는 부분과 충돌하는 면도 있어. 소수자부터 모든 이들이 담겨야 하는 참사에 대한 정의가 다시 정립되어야.

혜진;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앞으로 계속 토론을 하면서 받을 것이기 때문에. 크게 보면 이 선언의 성격과 위상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제안이 있었다. 구체적인 법체계 또는 시민헌장. 적어도 이 부분은 논의를 하여 정리를. 두 번째는 기초와 방향에 대한 문제제기. 이후 방향에 대한 문제의식이 담겨야 한다. 이후 우리가 바라는 세상이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 4.16 참사의 역사적인 과정들과 이후 사회를 바라본다고 했을 때 어떤 정치적인 행위나 언어로 표현될 수 있을지도 이윤추구와 관련된 내용들을 포함하여. 이 기초와 관련해서는 쉬운 언어로 다뤄야 한다는 것은 동의를 하실 것이라 생각되어 발제자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리를 해보았으면 좋겠고. 세 번째는 형식 안에서 구체적인 요구들이 어떻게 담길 수 있을지. 청소년, 장애인 등등. 청소년이 스스로 결정할 권리, 선거권, 치유, 진실규명, 권리충돌 상황에서 원칙, 배상관련 기본원칙과 내용, 안전, 국가에 대한 개입, 교육, 참여할 권리가 명시되어야 하는 것 등. 권리 항목들을 제출해주셨다. 이후에 더 많은 토론으로 이야기될 것이기 때문에 어떤 방향으로 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도 해야 할 것 같다.

정훈; 발의문을 참 잘 만들었다. 발의문이 완벽하면 논의가 종결되니까. 제가 이렇게 정리하겠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발의문을 만드는데 참여한 분들이 여기 계시고 많은 분들이 저자로 참여하게 되는 과정인 것이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주시기를. 27페이지에 질문들

이었는데, 이것을 써서 보내주시면 정말 의견을 반영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다. 선언에 참여한 개인으로서 말씀을 드리자면, 선언이 정치적인 실효성을 담보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고, 해설서는 공식적 판본으로 만들면 안되겠다는 생각. 해설서는 단위별, 개인별로 썼으면 좋겠다. 의미가 이거다라고 공식적으로 정의해버리는 것이 좋은가하는 고민이 들었다. 이 선언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는 각자가 토론하면서 그룹별, 개인별로 선언을 다시쓰거나 새로운 걸로 만들어주셨으면 이것이 취합되고. 오리지널버전이 있다면, 성소수자, 이주민, 청소년, 지역 등 구체적으로 다양하게 변형된 방식의 선언문이나와도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다. 성안팀 차원에서는 계속 의견을 반영하여 만들어가겠다.

진우; 전문 형식이 굉장히 어려운데. 논의 전체를 달는 것 같아서 처음부터 말씀 못드렸는데. 전문이 비문도 많고, 한문장으로 만들어진 것은 한문장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전체가 하나를 관통하고 있다는 이 모든 것들이 참사와 재난을 만들었다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을 여지가 있을 수 있다는 판단으로 만들었다. 엘리트식 언어라는 지적은 맞다. 이 자체를 쉽게 쓸 생각은 없었고, 구체적으로 담겨야 할 것들이 담겨야 하기 때문에 이를 목표로 썼고. 새롭게 쉬운 글들은 또다른 이후의 토론을 통해서 만들어가면 어떨지. 평등, 비차별 부분들을 다 담으려고 하다가 원칙 수준에서 담고, 구체적으로 기술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구체적인 언급이 없다고 느끼실 수 있을 것 같고. 이후에 토론과정에서 만들어졌으면. 오히려 열어놓다 보니 추상적으로 가게된 측면도 있다. 헌장, 기본법 등은 별도의 실행팀을 만들지 않는 이상 어렵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었다. 4.16 인권선언을 만들 때, 4.16이 들어가는 것이 맞나하는 의견들도 있었다. 긴급구조, 지원 등이 권리의 독자 항목으로 분명히 드러나야한다고 하는 분들도 있었고. 다른 측면에서, 세계인권선언이 2차 세계대전을 딛고 나온 선언인 것과 마찬가지로 이전의 수많은 참사들이 세월호로 빵 터진 것이고. 이후에 어떻게 해석하고 담아낼 것인가를 4.16으로 상징하려고 했다. 모자라거나 부각되었다고 느끼실 수 있다. 조율해가는 것이 필요할 듯. 고생한만큼 토론이 나와서 다행이다라고 생각.

혜진; 구체적인 법체계의 방식 혹은 시민헌장과 같은 삶의 가치들을 스스로 재구성하는 방식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 경계를 왔다갔다한다는 느낌을 받으실 것 같기도 한데. 이와 관련하여 2명정도 의견을 듣고, 정리해가는 방식으로 이야기해봤으면 좋겠다.

미류; 분명한 것은 4.16인권선언 운동은 입법운동으로 출발하지 않았다. 인권기본법으로 준비하는 것과 시민헌장으로 준비하는 것 사이의 긴장 속에서 인권선언운동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에서 이야기되어야 할 것 같다. 여러 긴장 속에 놓여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인권선언문을 통해서 최대한 이루어내야 하는 것과 운동의 과정에서 풀 수 있는 것들을 함께 열어놓고 고민했으면. 인권선언은 이렇게 나오지만 청소년, 이주민, 집단등의 선언으로 이어지거나 조례로도 제정될 수도 있는 것. 어떤 한 방향을 선택하기보다는 시민들과 민중들에게 자꾸 매력을 느끼게 하고 그 이들이 이끄는대로 나아갈 수 있게 길을 만드는 방향으로 운동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인권선언문은 하나의 기준만 만족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말문이 막히면 안된다 입이 근질거리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

임종호; 가족들이 지금 사실상 여기까지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편안하거나 집중되는 여건은 아니다. 총체적인 문제는 세월호 사고 이후에 사회 전반적인 것을 다시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던 것은 사실. 수많은 참사들이 있었지만 우리 사회에서 가장 공감되는 부분이다수의 희생자가 아이들이었던 것이어서 크게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 교육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이 문제인데. 4.16인권선언을 생각했을 때, 이제 1년이다 되었는데. 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또한 다음 참사가 없으리라는 보장은 없다. 먼저 우선시되어야 할 것

은 국민간담회든 인권선언이든 모든 것의 맥락은 하나. 이 세상을 바꿔야 한다. 이것이 강조되는 방향으로. 정답이 뭐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 원가 4.16 이전과 이후는 달라져야 한다는 것은 다 같은 생각. 이후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호응해야 한다. 꼭 무엇을 고쳐서 소를 잃지 않아야 하는 사람들과 소를 잃은 사람들의 절실함은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서로 맞추어야 한다.

혜진; 4.16 인권기본법의 문제의식이 살아있지만, 기본은 인권선언운동으로부터 출발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살렸으면 좋겠다. 이 의미는 이것이 이후에 법, 또는 조례로 나아갈 수 있다는 가능성까지 두자. 현재 우리는 인권선언운동으로부터 출발하자. 민교협, 민변에서 구체적인 안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이 또한 운동의 성과가 될 듯.

논의를 계속 하는 사람들이 읽어내지 못하는 많은 시민들의 구체적인 생생함을 담아내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 쉬운 언어, 방향성, 4.16이라는 구체성이 담겨야 하는 문제의식이 충분히 담길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논의를 해주시기를.

다양한 자리의 사람들을 열거할 때 또 배제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고민도 가지고 있으니, 이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또 토론하는 과정을 가졌으면 좋겠다. 오늘 꼭 포함되었으면 좋겠다고 하셨던 내용들은 담다 보면 성안팀에서 생각한 맥락과는 빠져나가는 것들이 생길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포함되었으면 하는 것들이 있다면 나중에 또 수위들을 맞춰갈 수 있다는 믿음을 갖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일관성이 조금 떨어지더라도 포함되었으면 하는 이야기들이 잘 담길 수 있도록 성안팀에서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아마도 5.9까지 충분히 담기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 때에도 토론하면서 담다 보면 풍부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다.

마지막 25페이지. 존엄과 안전에 관한 4.16 인권선언 추진위원 결의문

오늘 이 결의문을 채택하게 되면, 이것은 후속보도자료로 나가고 21일 기자회견에도 발표될 것

발의문 통과, 결의문 채택

수정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아주 기본적인 안으로 통과시켜주시면 어떨까.

-전원동의.

이것도 채택.

-전원동의.

미류; 발의문에 대해서 여러 의견이 나왔고, 당연히 수정을 할 것이고. 올 연말까지 수정할 것인데, 다음 기자회견에서 발표된다는 것은 첫 문서가 되는데. 이대로 발의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는 것. 기자회견 때 발의하는 것도 가능한지. 첫 선으로 보이는 것은 조금 아쉽다고 하신다면, 기자회견 때는 이런 취지의 것을 준비 중이었다라는 정도가 될 것 같다.

혜진; 21일 기자회견 전까지는 수정되기가 어려우니, 취지를 밝히는 수준에서 이야기할 것인지 앞으로 수정할 것을 전제로 하여 내용을 공개할 것인지.

창현엄마; 기자회견을 미룰 수는?

이승원; 기자회견으로 공개되면 논란의 여지도 있고.

혜진; 기자회견은 이후로 연기했으면.

정훈; 회의를 해봐야겠네요. 개인적으로는 연기하는 것 가능하고, 심지어는 기자회견 한다고 하더라도 그대로 내는 것은 아닌 것 같다.

혜진; 기자회견에는 결의문만 발표하고, 어떤 내용이 담길 것인지에 대해서는 추상적으로 정리하거나 이 자체를 연기하는 것으로.

연자; 기자회견은 하는 것이. 일정도 공개하고.

혜진; 기자회견은 추진하되, 결의문, 일정, 취지를 중심으로 발표한다.

회의일정

5/9 연기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제안

일요일이면 17일이후도 가능할 것 같다는 의견들도 있다.

조금 더 충분한 준비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신부남; 장소변경 나중에 알았고. 미리 먼저 받았던 것으로 준비하고 있는데, 변경에 대한 부담이 있다.

덕진; 5/9에 모인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어서 부담이기는 한데, 자세히 안내하면 않을까. 9일까지 시간을 가지고 심사숙고 하는 것이 조금 빠듯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든다.

혜진; 이미 제안된 분들도 많아서 빼놓은 일정이 많으시겠지만 싸움을 해야하는 상황에서 가족, 성안팀의 논의도 굉장히 많이 필요한 상황이 되었는데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17일 혹은 24일로 결정을 해서 빠르게 제안을 하면 어떨지.

미류; 5/9 모두 비워놓으셨을테니 취소를 정하기 보다는 혹시 성안팀에서 수정안이나 온다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토론할 분들이 모일 수 있는 날로.

혜진; 5/7 워크숍을 5/9로 옮겨서 실질적인 토론으로 조직해서 거대한 워크숍을 하는 것으로 하고. 5/17 또는 24일로 잡아서 빠른 시간 안에 연락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